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보도자료

2024년 12월 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담당부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연구조사부장 이병규(063-530-9430) / 담당자 임현진(063-530-9432)

동학농민혁명 신자료, 『이풍암공신행록』 최초 발굴

- 풍암 이병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내용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자 독립유공자인 풍암 이병춘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을 새롭게 발굴하여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은 풍암 이병춘(李炳春)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 말미에 포덕(布德) 56년(1915)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 작업을 시작해서 1915년 완성했다고 보여진다. 이 자료는 이병춘이 구술하고 그의 문하생인 김재홍이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고 있다. 자료명을 이풍암공신행록이라고 붙인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자료는 총 1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인 이길호(천도교 전주교구장)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공하여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병춘은 1864년 2월 전라도 임실 상동면 효촌(왕방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1888년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2년 12월에 대정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1894년에는 접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894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어렵게 탈출하여 피신활동을 이어 나갔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는 천도교에서 천도교 전주 대교구장, 성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병춘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종법사, 법정 등 주로 천도교의 고위 직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3년 6월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천도교 중앙 교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전국에서 조문이 이어져 만장행렬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풍암공신행록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불과 17년이 지난 후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이병춘이 구술하고 문하생인 김재홍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불분명했던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다. 1893년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전봉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분명하였다. 이에 대해 ‘四月에 更會于忠淸道報恩郡帳內하야 始設倡義所하니 其時에 古阜郡全琫準은 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 고 하여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했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조신원운동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둘째, 동학교도가 입도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접주로 임명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병춘이 어떻게 동학을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접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춘은 최시형을 만나러 올라가던 중 1894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었다가 겨우 탈출하여 피신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갔는지 매우 상세하게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농민군이 어떤 처지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넷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894년 최시형의 활동 일자와 장소를 알 수 있다. 1894년 10월 ‘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 라고 하여 최시형이 이곳에서 머물렀음이 확인된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시형의 이동에 직간접으로 이병춘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병춘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도 최시형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가장 큰 사료적 가치는 동학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참여한 이병춘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주력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이 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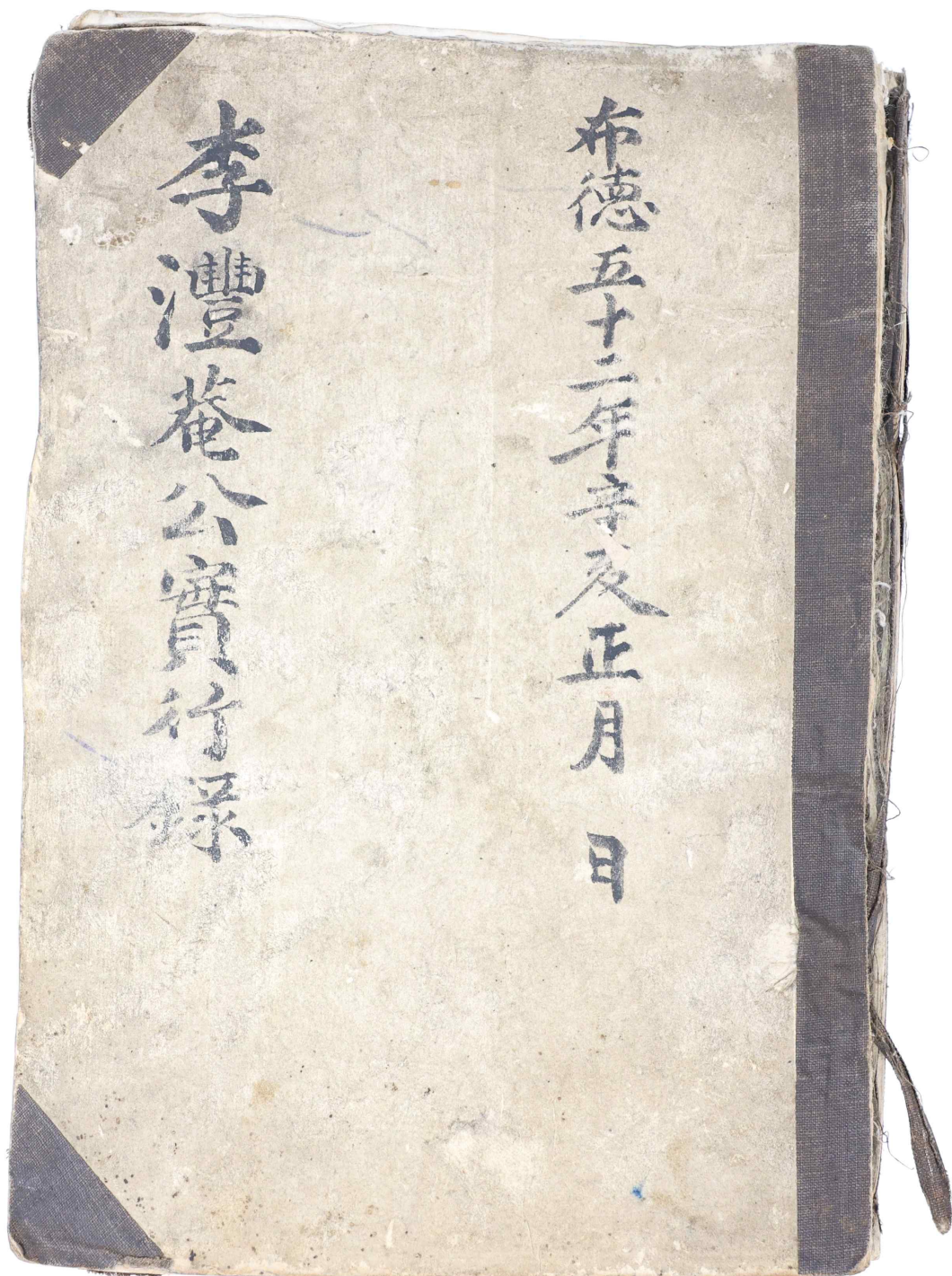
신영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은 “이풍암공신행록의 발굴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직접 남긴 사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이 자료를 11월 30일에 발간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3호에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말했다.

붙임 : 이병춘 사진 및 이풍암공신행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임현진(☎ 063-530-9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甲子

李豐菴公實行錄

李炳春의字는明運의호本는全州人이니諱敬華之
 孫이호諱載洪^字之第四子也라妣는天安全氏니天性이
 端莊貞一호고慈仁恭儉호有慈德이라寓居于任實
 郡上東面旺方里호호夢에五鳳山이聳出호호自落于
 裳中而萃虫이飛抱於懷中이런니遂感而生焉호호
 布德五年甲子二月二日申時也라幼而岐嶷호호如老
 成人호호天稟이孝友호호氣宇가豁達호호有泛愛容
 衆之德이라家勢가饒足호호門閥이繁昌矣호호年甫
 五歲에父親이下世호호其後에諸兄이亦皆早夭而產

癸巳

又承大正之任帖云 即先生主親命之教也 云云
 癸巳年二月十日 以大神師主伸寃之意 云云 全國教人
 一齊來會于京城 云云 齋沐云云 員大典與歌詞而
 百拜上疏于北闕下 光化門外 望外痛哭六七日 云云 不承
 都俞之旨 云云 使司謁輩 云云 逃出故 云云 即為解散矣 云云
 四月 云云 更會于忠清道報恩郡 帳內 云云 始設倡義
 耶 云云 其時 云云 古阜郡全琫準 云云 亦會于全羅道金溝
 郡院坪 云云 來應者殆近數萬人 云云 立法令 云云 嚴正 云云
 一心成團矣 云云 其時 云云 御史魚允中 云云 奉詔命 云云 曰汝
 等之耶願 云云 盡從之 云云 云云 即為解散 云云 云云 云云 終不